

청년 일자리 고민 해결 나서

황숙주 순창군수, 지역 청년들과 간담회 열어... 참여자들 "지역 실정에 맞춰야"

황숙주 순창군수가 지역 청년들을 만나 일자리 문제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지역청년들을 위한 양질의 맞춤형 일자리 창출에 나서 지역의 이목이 집중됐다.

군은 22일 문화의집 2층 회의실에서 청년 맞춤형 일자리정책 발굴을 위한 순창군 청년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청년 간담회는 오는 30일까지 순창 지역을 순회하며 총 4회 진행되는 청년들과의 릴레이 소통의 첫 번째 청년간담회다.

지역 청년과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해 일자리에 대한 지역 청년들의 뜨거운 관심을 나타냈다.

간담회는 순창 일자리 정책에 대해 소개하고 청년들이 자신이 느끼는 현실을 말하고 일자리 정책에 대한 궁금한 사항을 묻는 대화 시간으로 진행됐다.

참석한 청년들은 "정부 차원에서 확실히 일자리보다는 순창 지역실정에 맞는 안정적인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나서 줄 것"을 주문했다.

황군수는 "오늘 간담회를 통해 지역 청년들이 어떤 현실이고 또 어떤 일자리를 원하는지 잘 알게 됐다"면서 "오늘 도출된 청년들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해 군의 역량을 일자리 창출하는데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군은 이번 간담회시 건의된 의견들을 최대한 반영해 하반기 일자리 창출 정책에 반영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순창군은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기업체에 청년들이 취업시 취업 인력의 50~80만원을 지원하고 취업 장려금을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또 마이스산업 전문인력양성, 농식

품가공창업 아카데미, 짧은 농업인 비즈니스 모델 구축 교육, 구직자와 기업체의 맞춤형 인력 매칭 서비스, 발표아카데미 운영사업 창업 등 청년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 공공부문 일자리 실태조사 공공 부문 여성과 청년일자리 확대, 창업 지원 조직육성수당 등 청년을 위한 체계적 지원을 위한 청년관련지원조례 제정, 농촌의 성장과 청년층 취업을 위한 사회적기업 및 마을기업 확대, 4차산업과 연계한 청년일자리 등을 추진해 지역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와 창업 기회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간담회는 7월 6일까지 각 지역을 순회하며 4회 진행하며 만 18세 이상 만 39세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총 400여명의 청년들이 참여할 계획이다.

/순창=이양원 기자



소비자가 선호하는 고품질 쌀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종자 선택부터 논물 관리, 적정사비, 병해충 방제, 수확 및 건조 재배기간 전 과정에 걸쳐 세심한 주의를 필요로 하나 방제시기를 놓치면 당해 농사를 망치기 쉬우므로 그 시기를 놓쳐서는 안 된다.

"논 잡초, 중점 방제시기 놓치면 농사 망하기 쉽다"

남원농기센터, 가뭄에 따른 논 잡초방제 해결법 제시... "중간낙수 적기, 25일부터 ~30일"

소비자가 선호하는 고품질 쌀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종자 선택부터 논물 관리, 적정사비, 병해충 방제, 수확 및 건조 등 재배기간 전 과정에 걸쳐 세심한 주의를 필요로 하나 논 잡초의 경우 중점 방제시기를 놓치면 당해 농사를 망치기 쉬우므로 그 시기를 놓쳐서는 안 된다.

남원시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환중)는 체계적인 잡초방제 요령으로 씨래질 직후 사용하는 초기제초제, 이앙 후

10~20일경 사용하는 중기제초제, 후기제초제로써 이앙 후 25일경 중간낙수 시 처리하는 경엽처리제를 논 잡초 출현 양상에 따라 선택·사용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극심한 가뭄으로 논물 대기가 여의치 않아 논바닥이 드러난 마른 논이 많고 초기 중기 제초제를 처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를 비롯한 논 잡초의 발생 빈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남원시 농업기술센터 조동석 지

도사는 남원시 의 경우 집중 이앙기에 따른 중간낙수 적기가 6월 25일~30일경 예상되므로 마지막 방제적기를 꼭 놓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내 논에 발생하는 잡초 종류와 발생정도에 따른 전용약제를 선택하고 약제별 희석농도 준수 등 사용지침을 지켜 살포해야 약해 피해를 예방할 수 있으므로 더욱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덧붙였다.

/남원=유영철 기자



한국치즈과학고 선진국 체험캠프 개최

2010년부터 매년 30여명 해외로 견문

임실군은 대한민국 유일의 치즈 특성화고등학교인 한국치즈과학고등학교(교장 실동주)의 역량강화를 위해 '선진국 체험캠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지난 21일 보고 회를 개최했다.

올해 선진국 체험캠프는 지난 2일부터 7일까지 5박 6일의 일정으로 2학년(치즈과학과, 조리과학과) 전학생이 참여해 100여년의 치즈 역사를 가진 일본 북해도 지역으로 다녀왔다.

치즈 공방 견학, 유제품 제조과정 참여 등 현장 실습위주의 과정을 중점적으로 진행해 국내에서 경험하지 못한 다양한 노하우를 습득했다.

또한 참가 학생의 치즈·조리분야 전문지식을 높여 역량을 강화하고 특성화고 설립목적에 맞는 취업과 연계될 수 있을 것으로 기

대하고 있다.

캠프에 참여한 허다운 학생은 발표를 통해 "국내에서 체험할 수 없는 여러 치즈 공방들과 목장들을 직접 방문해 치즈를 만들고 다양한 관련 상품을 견학할 수 있어 인상적이었다"며 "견문을 넓히고 노하우를 체득하는 뜻깊은 계기가 됐다고 설명했다."

심민 군수는 "선진국 체험캠프를 통해 국내 뿐 아니라 해외 기술을 배우 임실N치즈 발전에 기여하는 인재로 자라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지난 2010년부터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해 한국치즈과학고등학교 선진국 체험캠프를 지원하고 있으며 매년 30여명 이상의 학생이 해외로 나가 견문을 넓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임실=진홍영기자

순창경찰, 매월 찾아가는 '릴레이사랑나눔' 진행

순창경찰서(서장 신일섭)에서는 매월 1~2가정의 소외가정을 찾아가 범죄예방 진단 및 필요한 부분을 행하는 '릴레이 사랑나눔'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릴레이 사랑나눔은 범죄 피해 여부·가족구성원의 구성·기초생활대상자 여부·장애여부 등을 종합하여 소외가정 10가정을 선정하고 매월 이 가정들을 방문하여 말벗이 되어주고 격려하며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이다.

유관기관인 군청과 함께 방문하며 서로 피드백을 공유하고 있으며 점차 그 가정수를 늘려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 날 찾아가한 마을의 한 주민은 "처음 경찰관이 방문한다고 했을 때 어안이 벙벙했다"

평생 마주치지 않을 것 같은 경찰관이 직접 집에 방문하여 가정내 고장나고 망가진 것은 없는지 세심하게 신경써주는데 고마울 따름이다"라고 감사 인사를 전했다.

신일섭 서장은 "소외된 가정을 돕는 첫 번째 행보는 현장에 방문하여 어려움에 귀 기울이고 공감하는 정서적 지원을 하는 것이다. 어려운 이웃을 서로 피드백을 공유하고 있으며 점차 그 가정수를 늘려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

지역 소식통

이성해 청용면장 공직생활 마무리

37년 동안 임실군 발전에 헌신해 온 이성해 청용면장이 명예로운 공직생활을 마무리한다.

23일 가족과 친지, 직원, 주민 등 약 1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면사무소 회의실에서 이임식을 갖는다.

이성해 면장은 지난 1980년 순창군에서 공직 생활을 시작으로 1982년 임실군으로 전입 후 공보, 감사법무, 경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지난 2007년 사무관으로 승진 후 삼계면장, 군정발전기획단장, 의회사무과장, 행정지원과장, 재무과장을 거쳐 2014년 고한인 청용면장으로 발령받았다.

/임실=진홍영기자



임실군, 탄소포인트 인센티브 지급

임실군은 온실가스 감축 실천프로그램인 '탄소포인트'에 가입된 884대를 대상으로 인센티브를 지급한다고 22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온실가스 감축량은 CO2 2백20톤으로 정기로 환산하면 약 52만kWh를 절감했다.

이에 따라 1,400만원 상당의 현금 상품권, 그린카드 포인트, 종량제봉투를 내달 9일까지 지급할 예정이다.

/임실=진홍영기자

순창군, 우체국 돌보미 서비스 협약

순창군과 순창우체국이 우체국돌보미서비스(Post Care Service)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22일 순창군청 군수실에서 임무협약을 체결해 홀로어르신들의 복지 향상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우체국돌보미서비스(Post Care Service)는 집배원 등 우체국 직원이 주1회 이상 정기적으로 방문해서 농어촌지역의 홀로어르신들의 거동상태, 안부확인, 말벗되기, 애로사항 등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자녀에게 알려주는 서비스다.

지역실정에 밝은 우체국집배원이 농어촌지역 홀로 어르신들을 돌본다는 의미에서 효과가 높다.

이날 업무협약식에는 황숙주군수, 김병수 전북지방우정청장, 조장화순창우체국장 등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했다.

업무협약에 따라 순창군은 복지서비스 대상자 발굴 및 수수료 지원, 복지서비스 안내, 편지쓰기 등 지역사회의 소통과 복지증진을 위한 우정사업에 협조하게 된다.

/순창=이양원 기자

구독문의 288-9700

환

전 북 지구 청년 회의소

전남 · 광주 · 전북(형제)지구 JC 간담회

영

-함지웅 전남지구회장-

-정현균 광주지구회장-

-장승필 전북지구회장-

****형제(전남·광주·전북)지구 JC 간담회 전북 방문을 환영합니다.**

- ▶ 일시/장소: 2017년 6월 24일(토)~25일(일), 모항 해나루
- ▶ 참석대상
 - 전남, 광주, 전북지구JC 회장단 및 감사 상무위원, 롬회장
 - 한국JC 임원, 역대지구회장, 역대임원 등
- ▶ 주최: 전북지구청년회의소 (지구회장 장승필)
- ▶ 주관: 정읍청년회의소 (회장 김선홍)

세부 일정(안)

일	가	시	간	내	용	장	소	비	고
6/24	(토)	15:00~16:00		등록 및 방배경		모양	애나루		
		16:30~17:30		개회식					
		18:00~21:00		역식 및 우정의 밤					
6/25	(일)	08:00~08:30		기상					
		08:30~09:30		포식 및 유식					
		09:30~10:30		어린이 교통캠페인					
		10:30		예단식					